

파괴와 복원의 변증

—『삼국유사』와 13세기 고려의 문학적 再構—

고운기*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삼국유사』에 반영된 시대적 비극 |
| II. 빈 것과 찬 것 : 변증적 알고리즘 | V. 불교적 의의의 구현을 통한 복원 |
| III. 전쟁과 폐허 그리고 파괴의 13세기 | |

Key Words : 13세기 고려(Korea of the 13th century), 불교적 의의(meaning of the Buddhism), 변증(dialectic), 알고리즘(algorism), 삼국유사(Samkukyusa)

< 要 旨 >

일연(一然)은 13세기 고난의 시기와 그 생애를 같이 하였다. 정쟁(政爭)과 전쟁의 혼란이 가져온 결과였다. 『삼국유사』는 무너진 나라의 폐허 속에 시대의 아픔을 통감(痛感)한 지식인이 이룩한 무등(無等)의 텍스트이다. 내분(內紛)과 전쟁의 와중에서 강간(強姦), 유기(遺棄), 살인이 횡행하는 시대였다. 폐허였다. 이런 시대와 대응하여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연의 의중에는 폐허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숨어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삼국유사』의 이야기와 견주어 분석하였다.

- 최충헌(崔忠獻) 암살 시도 / 궁과(弓巴) 암살
- 나무에 매놓은 아이 / 땅에 문힐 뻔한 아이
- 강요당하는 이혼 /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

이야기는 불교적 의의가 구현된 것이었다. 불교적 의의란 변증적 사고방식이 생활에 적용된 알고리즘(algorism)이다. 그런 변증의 바탕 위에 13세기 고려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고전문학 전공

재구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연이 당대(當代)의 사실을 전대(前代)의 역사나 설화에 규준(規準)하여 그린 것이었다.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13세기 고려의 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텍스트로서 『삼국유사』가 지닌 성격을 찾아보고자 한다. 저자 일연(一然, 1206~1289)은 13세기를 살다간 사람이다. 그의 책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의 군데군데 나오는 참상은 13세기 고려를 그대로 상상하게 만든다. 그의 시대는 몽골 군사가 지나는 곳마다 잔멸(殘滅)하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참혹한 것이었다. 최씨무인정권은 그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항복하지 않았고, 그것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본문에 기술한 ‘삼국유사에 반영된 시대적 모순’의 시대란 13세기의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일연은 『삼국유사』를 통해 시대의 아픔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밝히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내놓았다. 이야기가 주는 위안과 즐거움이었다.

일연은 참혹의 너머에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일연은 이야기하는 제주를 다양하게 지닌 이였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 속에 풀어 넣는 비상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¹⁾는 전제 아래, 『삼국유사』 안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 제시해 본 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되는 논의가 이 글이다.

그것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교적 의의가 구현(具顯)되어서 가능했다. 불교적 의의란 ‘변증적 사고방식이 생활에 적용된 알고리즘(algorism)’이라 정의하고 싶은데, 승려 출신으로서 일연이 지닌 장점을 분석하는 일에 유용(有用)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파괴와 복원의 변증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13세기를 기록한 사료(史料) 곧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에서 찾고, 이에 대응하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병렬해

1) 고운기 『삼국유사 글쓰기 감각』, 현암사, 2010, pp.46-47

놓았다. 이것이 13세기의 역사적 보편성을 담보(擔保)하는 데는 미진하겠으나, 일연이 의도한 시대와의 화해를 엿보기에 충분할 것이다.

II. 빈 것과 찬 것 : 변증적 알고리즘

석지현(釋智賢) 시인의 노작(勞作) 『선시』 앞부분에 청매 인오(靑梅印梧, 1548~1623)의 시가 실려 있다. 청매는 서산(西山) 대사의 제자로 이름을 날렸던 조선 초기의 고승이다.

雲盡秋空一鏡圓 구름 다한 가을 하늘은 한 장의 거울이니
寒鴉隻去偶成痕 찬 기러기 외로이 가매 그 흔적 남네
南陽老子通消息 남양의 저 노인장 이 낚새 알아
千里東風不負言 꽃바람 일천리에 두 마음 맞비치네

청매가 쓴 <원상일점(圓相一點)>이라는 제목의 7언절구이다. 석지현은 옛 공안을 제목 삼아 쓴 시의 해설에서 마조(馬祖)와 도흠(道欽)의 일을 적어 놓고 있다.

마조가 어느 날 일원상(一圓相, 동그라미)을 그려서 도흠에게 보냈다. 도흠은 그 동그라미 안에 점 하나 찍어 다시 마조에게 돌려보냈다. 뒤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양 혜충(南陽慧忠)은 ‘도흠이 마조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하였다.

잘 알려진 공안이다. 편저자인 석지현은 다른 설명을 더하지 않은 채, ‘어느 대목이 마조가 도흠을 속인 곳인가 잡아내보라’²⁾고 한다. 가을 하늘은 ‘원상’이요 기러기 한 마리는 ‘일점’이다. 청매가 이렇듯 원상일점을 그림처럼 그려놓은 두 줄은 알겠다. 그러나 봄바람이 불어 ‘두 마음 맞비친다’³⁾는 말은 무엇인가.

2) 석지현 엮고 옮김 『선시』, 현암사, 2013, pp.64-65

3) 본문의 不負言에 대한 석지현의 이같은 의역은 절묘하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한다는 뜻이라 받아들인다. 이 시의 해석에 대해 <‘구름 걷힌 가을 하늘 한 거울로 등긋한 속 / 찬 기러기 홀로 가며 흔적 우연 이뤘다’는데 / 남양 땅의 노인만이 소식을 받고 나서 / 천리 밖 봄바람 속 말 뜻을 알았다네.>라는 의견을 이 논문의 심사자가 주었다. ‘속 말 뜻을 알았다’는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고견을 주신 데 감사한다.

좀 멀리 돌아가 보기로 한다. 두보(杜甫)의 <달밤에 집의 아우들을 그리워하며(月夜憶舍弟)>를 읽어보자. 그 가운데 절창인 다음 두 줄을 『두시언해(杜詩彥解)』는 이렇게 번역했다.

有弟皆分散 있는 아우들이 다 흩어져 가니
無家問死生 집이 죽음과 삶을 물을 데가 없도다

안사(安史)의 난에 쫓겨 다니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던 시절의 두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절이다. 『두시언해』의 번역자는 축자적인 직역에 충실하였다. 그런데 학생 시절 나는 선생에게서 이런 해설을 들었다. 이 구절은 ‘유(有)’와 ‘무(無)’의 문법적 성격과 역할을 잘 알아야 한다. 이 글자들이 술어로 쓰이면 뒤에 이어진 글자가 주어이다. 곧 제(弟)와 가(家)는 주어로 번역해야 한다. 이것도 큰 주어는 생략된 것이고 작은 주어일 뿐이다. 큰 주어는 시인 자신이다.

(나에게는) 다 흩어져 간 아우들만 있고
생사를 물어볼 집은 없으니4)

『두시언해』의 번역이 나쁘지는 않으나, 시인의 척박한 상황과 심리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자면, 있고 없고의 변증법적 쓰임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흩어져 간 아우들’이라는 사건은 없어야 하는데 있고, ‘생사를 물어볼 집’은 있어야 하는데 없다.5) 있고 없음의 이 기막힌 뒤집힘, 거기에 시의 눈[詩眼]이 자리 잡았다. 두보는 유가(儒家)에 충실한 시인이었으나 사변(思辨)의 깊은 속에는 불가(佛家)의 변증도 도사려 보인다.

이제 13세기의 우리 시에서 한 편 뽑아보기로 하겠다. 유자이면서 불자의 세계에 눈을 뜨고 있었던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샘 속의 달을 읊음(詠井中月)>이라는 작품이다.

山僧食月色 산에 사는 저 스님 달빛을 탐내
瓶汲一壺中 물과 함께 한 병 가득 길고 있소만

4) 송준호 『우리 한시 살려 읽기』, 새문사, 2006, pp.32-33

5) 위의 책, p.33

到寺方應覺 절에 가선 바야흐로 깨달으리라
瓶傾月亦空 병 기울면 달빛조차 간 데 없음을6)

어렵지 않은 글자만 가지고도 정확히 운을 맞추고,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불교 논리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시화한 작품이다.

달빛을 사랑하는 스님이라면 벌써 그것으로 공(空)의 생애를 충분히 실천한 분이려만, 그조차 욕심이요, 병 속의 가득찬 물을 쏟아내면 달빛 또한 사라지니, 완벽한 공(空)의 세계를 향한 치열한 싸움이 아닐 수 없다. 절묘한 표현이다. 샘물에 비친 달빛조차 색(色)의 세계로 여길 정도이니, 인식의 철저함을 넘어 시적 형상화의 수준에도 혀를 내두를 만하다.

이만한 문학세계를 구축한 이규보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1168년에 태어났다. 이 해가 의종 22년이었는데, 그로부터 꼭 2년 뒤에 무신난이 터졌다. 집안이 그다지 번성해 보이지 않으나, 그럴수록 글로써 벼슬을 살고 집안을 일으켜야 할 형편에, 태어나자마자 만난 이런 시국의 비상사태는 그에게 결코 유리할 것이 없었다. 한미(寒微)하기는 하나 그 또한 문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 바탕 풍운의 시기가 지난 다음 이규보는 현실적인 길을 찾기로 하였다. 무신정권은 최충헌에 이르러 안정을 찾고 있었다. 최충헌이 이의민을 죽이고 실권을 잡은 것이 1196년, 이규보의 나이 28세 때였다. 이규보는 최충헌의 동향을 유심히 살폈으며,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문을 지어 보냈다. 그런 그를 최충헌이 알아보고 등용한 것은 이규보의 32세 전후로 알려져 있다.

그의 행적이 오늘날까지 처신에서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평론가 김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규보로 대표될 수 있는 무인정권하의 기능적 지식인은 권력에 대한 아부를 유교적 이념으로 호도하며, 그것을 유교적 교양으로 카무플라지한다. 가장 강력한 정권 밑에서 지식인들은 국수주의자가 되어 외적에 대한 항쟁의식을 고취하여 속으로는 권력자에게 시를 써 바치고 입신출세의 길을 간다. 그가 입신출세하는 한, 세계는 여하튼

6) 번역은 송준호 『한국명가한시선 I』, 문헌과해석사, 1999, p.251에서 가져왔다. 이 논문의 심사자가, <산 스님이 달빛을 갖고 싶어서 / 병으로 떠 동이 속에 담았지만 / 절에 가면 바로 곧 알게 되리라 / 병 기울 제 달도 또한 사라졌던걸.>이라는 해석을 제시해 주었다. 2행과 4행의 대조가 보다 분명하다. 고견을 주신 데 감사한다.

태평성대다.)

한마디로 권력에 이부한 지조 없는 문인이라는 평가이다. 그에 반대되는 자리에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무신정권에서 벼슬을 하는 것을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기회가 오자 당당하게 나아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최씨정권의 문인들 가운데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했다. 그 점을 두고 이규보를 낮게 평가하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벼슬을 해서 생계를 넉넉하게 하지는 것은 당시에 누구에게나 공통된 바람이었다. 정권에 참여해 역사의 커다란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 잘못일 수 없다. 무신난이 중세전기를 파괴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규보는 중세후기를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⁸⁾

국문학자 조동일의 평가이다. 사(士)는 독서하는 자요, 대부(大夫)는 종정(從政)하는 자리는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다. 기용되고 안 되고 문제이지, 기용된 이상 제가 지닌 능력을 발휘한다는 일반론이다. 나아가 학계의 일각에서 나오는, 몽골 항쟁에 강한 영도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권에 협조했다고 보는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

다시 앞의 시로 돌아가 보자.

병에 긴 물의 찬 것과 빈 것에 따라 달빛이 담기고 사라지는 절묘한 비유는 공색(空色)의 논리를 시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두보의 시에서 있음과 없음의 착종이 가져다 준 슬픔과 견주게 한다. 물론 두보는 훨씬 현실적인 문체 곧 전쟁과 이산(離散)으로 야기된 삶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처절하다. 이규보가 달을 노래하는 것과 다르다. 하지만 궁극적인 지점에서 두보의 있음과 없음은 이규보의 참과 빔으로 만난다. 이규보 또한 두보 못지않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나온 석지현 시인의 물음에 답해 보자.

원상(圓相)과 일점(一點)을 두고 우리는 공과 색에 견줄 수 있다. 그러나 원상

7) 閔泳珪의 입장은 더 단호하다. 花朝月夕을 읊조리는 그의 시는 ‘바다 건너 도살로부터 쫓기는 백성들의 아우성 따위는 설혹 그 중에 한두 수 보인다 해도 그저 건성일 뿐, 文字上의 노름 이상의 것이 아니다’는 혹평이 그렇다. 『四川講壇』, 又半, 1994, p.78

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제4판), 지식산업사, 2005, p.28

인 하늘에도 무엇인가 채워지기도 하고, 일점을 이룬 새는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니 원상이 곧 공(空)만은 아니요 일점이 색(色)만은 아니다. 마조가 그린 동그라미에 점을 찍은 도흠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선시(禪詩)의 해석에 변증법적 방법은 상식적으로 동원된다. 앞서 본 두 편의 시도 예외가 아니다. 공과 색의 정반합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개(有限個)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을 말한다.⁹⁾ 흔히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연산하는 수순(數順)이다. 그러나 부여된 문자가 수학적인지 비수학적인지, 또 사람의 손이든 지 컴퓨터로 해결하든지 관계없이 적용된다. 오늘날 특히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경우, 알고리즘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¹⁰⁾

이를 원용하여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인지와 불인지를 넘어, 일정한 고리가 있는 일관된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인식에도 판단 과정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 인지와 불인지는 서로 변증적인 관계로 말미암은 상호 및 교호작용의 관계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두 세계에 대한 면밀한 통찰과 전략적 응용으로 인간에 대한 엄정한 이해를 얻어낸다. 연산의 수순(數順)을 응용한 인식의 수순(隨順)이 동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완성하는 체계이다. 나는 이것을 변증적 알고리즘이라 부르고자 한다.

앞서 이규보의 시와 함께 그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평가는 극단적이었다. 이 같은 극단으로 인간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 변증적 사고방식이 생활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가져와 보자. 연기(緣起)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¹¹⁾는, 깨달은 석가모니가 내린 미혹의 인과에 대해 주목한다. 바로 상의성(相依性)이다. 혼란의 시기를 살다간 인간에 대해서일수록 이런 방법론이 필요하다.

시대 또한 그렇다. 13세기 고려의 역사는 변증의 알고리즘으로 풀어내야 한다.

9) 그러므로 알고리즘은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의 집합이며, 한정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인터넷IT용어대사전』, 일진사, 2011)

10) 위의 책, 같은 부분

11) 성철 『百日法門』, 장경각, 1990, p.141

이는 다음 아닌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당대(當代)의 사실을 전대(前代)의 역사나 설화에 기준(規準)하여 그린 방법이었다.

Ⅲ. 전쟁과 폐허 그리고 파괴의 13세기

고려의 13세기는 무인정권과 대몽항쟁의 시대로 요약된다. 국내외적으로 터진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제재하지 못할 무력(武力)의 난무였다.

이제 상층부터 하층까지 혼란스러웠던 13세기의 상황을 실제 사건을 통해 살펴보자. 무인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최씨정권의 4대주인 최의(崔誼)의 죽음을 두고 『고려사절요』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1] 3월에 유경과 김인준 등이 최의를 죽였다. 의는 나이 젊고 어리석고 약하여 어진 선비를 예우하여 시국 정사를 자문하지 않고, 친하고 믿는 자가 유능(柳能)·최양백의 무리 같이 모두 가볍고 방정맞고 용렬하고 천한 자들이었다. 그의 외삼촌 거성원발(巨成元拔)은 의가 총애하는 여종 심경(心鏡)과 더불어 밖에서는 세력을 부리고 안으로는 참소를 행하였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한이 없었다. 그때에 또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창고를 열어서 진휼하지도 않아 이 때문에 크게 인망을 잃었다.¹²⁾

이것은 최의 개인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정사(政事)에 일방적이고 재물을 탐하며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권 전체의 문제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인정권의 폐해는 정권 내의 문제로부터 전반적인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정권의 정통성이나 자신감이 없을 경우 ‘가볍고 방정맞고 용렬하고 천한 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몽골과의 치열한 전쟁 중에 ‘여종 심경’ 같은 존재가 농단의 핵심에 섰다. 심경을 조종했던 사람은 거성원발인데,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최항(崔沆)의 첩이 그의 여동생이었다. 이 여동생이 최의를 낳았기에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농단의 주변에는 이렇듯 자격미달의 전횡자가 넘쳤다. 더욱이 흉년의 진휼 조치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사실 최의는 나이가

12) 『고려사절요』, 고종 45년(1258)

어린 데다 급작스럽게 정권을 이양 받아 정상으로 통치할 수 없었다. 아버지 최항 대에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기을을 바로잡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결국 김인준 등의 무인에게 살해당하고 최씨무인정권은 막을 내렸다.

정권의 상층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혼란은 아래로 파급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아래의 사건을 통해 잘 읽을 수 있다.

[2] 8월에 도적이 무릉(武陵)을 발굴(發掘)하니 왕이 예부의 제릉서(諸陵署)에 명하여 여러 능을 두루 살피게 하였다. 또 도적이 발굴한 것이 5, 6곳이 되므로 곧 중사(中使)에게 명하여 각기 원찰(願刹)의 중을 시켜 능을 수리하게 하였다. 유사가 여러 능의 능지기를 탄핵하여 파면시키고, 능호(陵戶)의 사람을 먼 곳의 섬으로 귀양보냈다. 이듬해 도적 두서너 사람을 잡아서 목베었다. 무릉은 바로 안종(安宗)의 능이다.¹³⁾

최씨무인정권의 초기의 사건이다. 굶주리고 성난 백성이 왕릉을 도굴하는 일조차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러있다. 무릉의 도굴은 그나마 힘이 있던 최씨무인정권 초창기이기에 제압이 가능하였다. 수리 후 관리에 좀 더 철저하고 범법자에게 형벌을 내렸다. 그러나 사서에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기을 붕괴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민간에서 자행되는 약탈이나 도적질은 차마 실록에 옮길 수 없을 만큼 흔했을 것이다.

게다가 몽골과의 전쟁이 더해진다. 전쟁이 남긴 폐허는, “몽고 군사가 광주(廣州)·충주·청주 등지로 향하는데, 지나는 곳마다 잔멸(殘滅)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¹⁴⁾는 기록에서 그 일단(一端)을 읽는다.

전쟁 기간은 최씨무인정권의 집권과 시간이 겹친다. 결사항전이었다. 그러나 ‘유독 고려만은 독립국으로 남아’ 있지만, 이것을 ‘고려가 몽골에 대항할 정도로 강성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¹⁵⁾이라는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씨무인정권은 그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항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최씨무인정권이 무너지고 고려가 항복한 이후 ‘원나라의 고려에 대한 짝사랑에 가까운 사항들이 비일비재’¹⁶⁾하다든지, ‘유일한 독립국이자 결혼동맹

13) 『고려사절요』, 희종 4년(1208)

14) 『고려사절요』, 고종 18년(1231)

15) 김운회 『몽골은 왜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나』, 역사의아침, 2015, p.31

국¹⁷⁾으로 지위를 누렸다는 평가는 재고를 요한다. 물론 충선왕이 원(元) 세조의 외손자이자 무종과 인종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심양왕으로 봉해지고,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왕실 차원의 일일 뿐이었다. 몽골이 효과적으로 고려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였다.

일단 한번 뚫리자 연약해진 국경은 한 군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금제 박인(朴寅)을 보내어 일본에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니, 이때에 왜적이 주·현을 침략하므로 박인을 보내어 강화하였다.”¹⁸⁾에서 보듯이, 일본 쪽도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일본의 중앙 정부가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이자 변방의 왜인은 늘 한반도로 향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 사회 하층의 민간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몽골의 본격적인 침략 이후 하층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테러를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해 엿보게 된다.

[3] 장생서(掌牲署) 죄수들 가운데 자색이 아름다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서리(署吏)가 당직 날 저녁에 강간하려고 하니, 그 여자가 굳게 거절하여 말하기를, “나 역시 대정(隊正)의 아내인데 어찌 남에게 몸을 맡기겠느냐.” 하였다. 서리가 기어이 그를 강간한 뒤에 돼지우리에 가두었더니, 못 돼지들이 앞 다투어 그 여자를 물어뜯어 ‘사람 살리’라고 다급하게 불렀으나, 서리는 거짓으로 그러는 줄 알고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 이튿날 밝을 녘에 가보니 다 뜯어 먹고 오직 뼈만 남아 있었다.¹⁹⁾

나라에서 주관하는 제사에 쓸 가축을 담당한 기관인 장생서에는 사법(司法)의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자는 대정의 아내라 하였으니, 비록 하급 지휘관이긴 하나 엄연히 감독 공무원의 가족인데, 여자가 죄수임을 빌미로 강간하는 일이 벌어진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강간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장생서에서 관리하는 돼지우리에 쳐 넣는다. 돼지에게 뜯어 먹히는 참혹한 테러가 발생한다.

16) 위의 책, p.32

17) 위의 책, p.38

18) 『고려사절요』, 고종 14년(1227)

19) 『고려사절요』, 고종 15년(1228)

이는 물론 매우 특수한 사건이다. 그러나 상층부가 농단을 벌이고 왕릉이 털리는 상황과 조응하여 보면, 관의 통치 지역인 관아에서 벌어진 이 같은 사건이 13세기 고려의 심각한 붕괴 현상을 웅변한다. 관아 바깥의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다.

무인정권의 전횡으로 기율이 무너지고 몽골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나라 안의 모습은 일연의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증언된다.

[4] 지금 전쟁을 겪은 이래 큰 불상과 두 보살상은 모두 녹아 없어지고, 작은 석가상만이 남아있다.²⁰⁾

[5] 조계종의 무의자(無衣子) 스님이 남긴 시가 있다. “나는 들었네 / 황룡사 탑이 불타던 날 / 번지는 불길 속에서 한 쪽은 / 무간지옥을 보여주더라고”²¹⁾

자료 [4]는 경주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불탄 모습을 전해준다. 일연이 폐허가 된 황룡사를 답사하고 남긴 기록이다. 청동으로 만든 1장 6척의 불상이 흔적 없이 사라진 자리에서 차라리 그의 붓끝은 담담하다. 충격의 역설일까? 일연과 동시대의 승려 무의자의 시를 인용한 [5]는 폐허의 상황이 무간지옥(無間地獄)과 다름없다고 묘사하였다. 더 이상의 표현을 찾지 못하는 탓일 것이다. 무의자는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5~1234)이다.

위의 두 자료는 현장의 목격담이거나, 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일어난 아래 이야기를 읽다 보면, 13세기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오버랩 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6]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쳐들어와 성안이 온통 혼란에 빠졌다. 최은함(崔殷咸)이 아이를 안고 와서, (중략) ‘관음보살의 힘을 빌려 이 아이를 키워주시고,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눈물을 쏟으며 강보에 싸서 부처가 앉은자리 아래 감추고 하염없이 돌아보며 갔다.²²⁾

신라 말 최은함이 아들 최승로를 살리는 이야기의 앞부분이다. 견훤의 침략은

20) 『삼국유사』, 「塔像」, <皇龍寺丈六>
21) 『삼국유사』, 「塔像」, <前後所將舍利>
22) 『삼국유사』, 「塔像」, <三所觀音衆生寺>에서 요약 인용

곧 몽골의 침략과 통한다. 본디 이 절의 관음보살에게 빌어 늦게야 아들을 얻은 은함은 위기의 순간에 다시 찾아왔다. 젓도 떼기 전의 아이를 맡긴 곳은 관음보살의 자리 아래다. 제아무리 불심이 깊다하되 무심한 청동 보살에게서 젓이 나오리라 믿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로 별무방법(別無方法) 끝에 내린 하릴 없는 선택지(選擇枝)였다. 이것이 전쟁이고, 일연에게 13세기의 고려 또한 그렇게 상상되었으리라 보인다.

이제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자신의 시대를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재구(再構)해 나가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적 변증이 작용된 극복의 어젠다였음을 설명하기로 한다.

IV. 『삼국유사』에 반영된 시대적 비극

1. 君臣 사이의 배신 : 염장/궁파

왕조시대에 군신간의 질서는 한 사회의 기율을 규정한다. 기율의 파괴가 어디에서 기인하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은 지대하다. 13세기의 그러한 상황과 이를 연상시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정중부의 쿠데타가 성공하여 우리 역사상 초유의 무인정권이 성립하지만, 경대승-이의민 등 실권자가 교체되는 20여 년간의 극심한 혼란을 극복하고 정권의 안정기를 이룩한 사람은 최충헌(崔忠獻)이었다. 1196년의 일이다. 이로부터 최이-최항-최의로 이어지는 4대간을 최씨무인정권이라 부른다.

그러나 강력한 최충헌 정권에게도 도전 세력이 없지 않았다. 그가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사건이 1211년 말에 벌어진다.

12월에 최충헌이 전주(鎭注)의 일로 수창궁(壽昌宮)에 나아가서 왕의 앞에 있었는데 조금 후에 왕이 안으로 들어가고 환관이 충헌의 종자에게 속여 말하기를, “왕의 명령이 있어 주식(酒食)을 내려준다.” 하면서 이끌고서 낭무(廊廡) 사이로 깊이 들어갔다. 조금 후에 종과 속인(俗人) 10여 명이 병기를 가지고 갑자기 뛰어와서 종자(從者) 2, 3명을 쳤다. 충헌이 변고가 있음을 알고 창황히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신을 구원해 주소서.” 하니, 왕은 잠자코 말이 없으며 문을 닫고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충헌이

어찌할 계책이 없어서 지주사(知奏事) 방의 장지(障紙) 사이에 숨어 있으니 한 종이 세 번이나 찾았으나 결국 잡지 못하였다.²³⁾

여기서 왕은 희종(熙宗)이다. 최충헌은 집권 당시 명종(明宗)을 폐하고 신종(神宗)을 세웠다가 다시 바꾼 왕이 희종이었다. 1204년의 일이다. 이후에 반복되지만 최충헌의 암살 시도에는 승려가 자주 개입되는데, 이는 무인정권이 기존의 불교세력을 축출한 데서 연유한다. 여기서도 ‘중과 속인(俗人) 10여 명’이 작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중하기로는 왕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암살 세력과 연락되어 있어서 충헌의 구원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최충헌은 몸을 숨겨 겨우 화를 모면했고, 마침 쥘내에 있던 김약진(金躍珍)과 정숙침(鄭叔瞻)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다. 김약진이 보복과 함께 왕까지 죽이자고 나섰는데, 충헌은 의외로 차분히 나라꼴을 걱정하며, “뒷세상의 구실이 될까 두렵다. 내가 마땅히 추국(推鞠)할 것이니 너는 경솔히 가지 말라.”고 타일렀다.²⁴⁾ 물론 사태가 안정된 이후 왕을 폐하여 강화현(江華縣)으로 옮겼고, 태자를 비롯한 아들과 가까운 일족을 모두 유배시켰다. 다음 왕인 강종(康宗)은 한남공(漢南公) 정(貞)이라는, 족보에서 아주 먼 이였다.²⁵⁾

이 사건은 13세기에 벌어진 대표적인 군신 사이의 배신을 보여준다. 어느 시대인들 이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 누란의 위기에 처한 시기의 모반은 권력자 사이의 유혈로 그치지 않는다. 곧 백성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이 같은 군신 사이의 배신을 보여주는 사건이 궁과의 죽음이 다. 궁과는 장보고의 다른 이름이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신무왕과 궁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제45대 신무대왕(神武大王)이 왕자였을 때, 데리고 있던 신하 궁과(弓巴)에게 말하였다.

“내겐 함께 하늘을 같이하지 못할 원수가 있소. 그대가 나를 위해 제거해 주고 내가 왕위에 오르면, 그대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겠소.”

궁과가 응낙하고, 마음과 힘을 함께 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서울을 쳐서, 그 일을 이룩해

23) 『고려사절요』, 희종 7년(1211) 12월

24) 위와 같은 부분

25) 위와 같은 부분

냈다. 왕위에 오른 다음 궁과의 딸로 왕비를 삼고자 했으나, 여러 신하들이 극렬히 아뢰었다.

“궁과는 미미한 사람입니다. 왕께서 그 딸을 왕비에 앉게 하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왕은 그 말에 따랐다.

그 때 궁과는 청해진(淸海鎭)에서 군사를 이끌고 있었다. 왕이 말을 어긴 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꾀하였다.²⁶⁾

신무왕은 궁과와 한 즉위 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왕이 신하를 배신한 것이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의 형국에서 신하는 반란을 꾀한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궁과는 왕의 위치가 되었다. 두 번째 충위의 이야기이다. 신무왕의 신하 염장(閻長)이 궁과를 제거하러 나서는 것이다. 당연히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염장은 궁과를 만나 자신 또한 왕에게 버림받고 왔노라 말하였다. 궁과를 죽이려는 계책이었다. 같은 경험을 한 궁과를 속이는데 적당한 방법이였다.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

“왕에게 거스르는 것을 했습니다. 장군께 붙어 해코지를 면해보려 할 따름입니다.”

“잘 왔군”

궁과는 술을 마시며 즐거이 놀았다. 술이 거나해지자 염장은 궁과의 긴 칼을 뽑아 목을 베어버렸다. 아래 군사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염장은 그들을 이끌고 서울에 이르러 왕에게 보고하였다.

“궁과의 목을 베었나이다.”

왕은 기뻐하며 상으로 아간(阿干) 벼슬을 내렸다.²⁷⁾

궁과는 장군으로서 왕의 위치, 염장은 부하로서 신하의 위치이다. 이 왕과 신하 사이에서도 배신이 난무하였다. 치밀한 계획으로 장군을 죽인 부하의 하층위는 신무왕과 궁과 사이의 상층위와 겹쳐진다. 배신의 왕은 배신당한 신하를 죽이거니와, 이는 희종과 최충현 사이에 벌어진 배신극의 역전된 상황이다.

일연은 자기 시대의 비극을 신라의 신무왕-궁과-염장의 관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6) 『삼국유사』, 「紀異」, <閻襄 弓巴>

27) 위와 같은 부분

2. 버림받는 자식 : 손순/아들

시대의 비극은 부자간의 친륜도 끊어 놓는다. 충(忠)에 앞서는 유교적 윤리의 덕목이 효(孝)이거니와, 사회가 한번 혼란에 빠지자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는 물론, 자기를 희생하여 자식을 살리는 부모의 미담 또한 제한적이다. 극한 처지에 몰렸을 때 인륜과 도덕은 힘을 잃는다. 자식을 버리는 비극이 횡행하는 것이다. 먼저 13세기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자.

3월에 여러 도의 고을들이 난리를 겪어 피해를 겪어 삼세(三稅) 이외의 잡세를 면제하고, 산성과 해도에 들어갔던 여러 도의 고을 사람들을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하였다. 그때에 공산성(公山城)에 들어갔던 백성들은 굶주려 죽은 자가 매우 많아서 늙은이와 어린이가 길가에서 죽었다.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붙잡아 매어놓고 가는 자까지 있었다.²⁸⁾

1253년에는 몽골의 제4차 침입이, 1254년에는 제5차 침입이 있었다. 고려는 보호의 명목 아래 백성을 섬과 산성으로 소개(疏開)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초토화 작전이었다. 원정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소개된 백성이 그 지역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조건을 맞았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보인 바, 1255년에 입보자(入保者)를 일단 출륙(出陸) 시키는데, 공산성에서의 경우 늙은이와 어린이의 피해는 심각하였다. 이는 물론 공산성만의 일이 아니었다.

가장 처연하기로는 아이를 나무에 매놓고 떠나버린 부모이다. 아이는 피난길의 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자료 [6]에서 보았다. 최은함의 아이를 절에 두고 떠나는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은함의 행동이 보인 신앙적 차원은 해석의 여지를 다르게 한다.²⁹⁾

오히려 『삼국유사』에서 대응할 사례를 찾자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신라 흥덕왕 때의 손순(孫順)이 자기 아이를 묻으려는 장면이다.

28) 『고려사절요』, 고종 42년(1255)

29)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매번 할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는 것이었다. 손순이 이를 곤란하게 여기고 아내더러 말했다.

“아이는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소. 잡수실 것을 뺏어 버리니, 어머니가 너무 배고파하시는구료. 이 아이를 묻어 어머니가 배부르도록 해야겠소.” 그러고서 아이를 업고 취산(醉山)의 북쪽 교외로 나갔다. 땅을 파다가 돌로 만든 종을 발견했는데, 매우 기이하게 생겼다. 부부가 놀라워하며 잠시 숲 속의 나무 위에 걸어두고 시험 삼아 쳐보니, 소리가 은은하기 그지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기이한 물건을 발견했으니, 아마도 아이의 복인가 합니다. 묻어선 안 되겠어요.” 남편도 그렇다 여기고, 곧 아이와 종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³⁰⁾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이 우선인 효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이 이야기가 효선(孝善) 편에 실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돌 중에 있다. 이 상징물이 주는 은은한 효과를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집에 돌아와 돌 종을 대들보에 달아 쳤더니 기이한 소리가 궁궐까지 들렸는데, 돌로 된 종에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를 현실의 메타포로 읽어야 한다.³¹⁾ 그러나 가난한 살림이 가져온 가족의 비극은 엄연하다. 아이를 묻어버리려는 시도 자체가 파괴된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무사히 피난하려고 아이를 나무에 매단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일연은 손순의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실으며 자신의 시대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은유했으리라 보인다. 다만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참혹의 너머에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연은 비극 이후의 단계를 설정하는 까닭이다.

3. 피폐한 시대의 부부 : 김현/虎女

혼란한 사회에서 여성의 삶 또한 편안할 수 없었다. 공녀(貢女)와 같은 정치적인 희생양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과고(寡孤)의 이중고를 일반 여성이 안고 있었다. 남편을 잃고 생활기반이 사라진 여성은 자식을 책임질 수 없었다. 거기서 고아가 넘쳐났다. 이제 그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13세기의 구체적인 사례와

30) 『삼국유사』, 「孝善」, <孫順埋兒>

31) 고운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02, pp.690-693 참조

『삼국유사』에서의 이야기를 대비해 보자.

여성의 고통스러운 생활상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부부간의 이혼이 흔한 일처럼 말해지고 있으나, 인륜을 넘어 천륜이라 여기는 혼인을 쉽게 깨지는 못하였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자주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13세기의 혼란한 시기에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듯 뜻밖의 이혼 사례가 눈에 띈다.³²⁾

[7] 왕규(王珪)는 평장사 계지무(季之茂)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그런데 지무의 아들 세연(世延)이 김보당(金甫當)의 막내 사위라는 이유로 김보당의 난에 죽었으므로, 이 의방(李義方)은 규도 함께 해치고자 하여 그를 수색하였다. 규는 정중부의 집에 숨어 화를 면하였다. 이때 과부가 된 중부의 딸이 규를 보고는 좋아하여 간통하였다. 규는 마침내 옛 아내를 버렸다.³³⁾

[8] 나유(羅裕)는 음직(陰職)으로 경선점록사(慶仙店錄事)가 되었다. 임연(林衍)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유의 장인 조문주(趙文柱)를 죽이고, 유에게 이혼을 하도록 위협하였으나, 유는 의로서 그것을 거절하였다. (중략) 이 때 조사(朝士)의 아내들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보통 다시 처를 얻었다. 적을 평정한 뒤 혹 돌아온 아내들도 있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다. 유 역시 이미 새 아내를 맞았으나, 먼저 적진으로 쳐들어가 옛 아내를 찾아와서 다시 전처럼 부부생활을 하니, 듣는 사람들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³⁴⁾

자료 [7]은 무신난이 한창이던 12세기 말의 기록이다. 정중부-김보당-이의방은 무신란 초기의 주요한 멤버들이다. 거기에 왕규가 끼여들어 화를 입고 있는 장면인데,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던 정중부의 힘에 의지하여 목숨을 건진 그는 결국 본처를 버리고 중부의 딸과 재혼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부의 딸이 남자를 유혹하는 문제적 인물로 그려져 있으나, 그 때문에 처를 왕규의 아내의 희생은 아무 것도 아니게 되고 말았다.

그에 비해 자료 [8]의 나유는 왕규와 정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연은

32) 이에 대해 고운기 「13세기 여성의 삶과 그 인식」,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2001, pp.69-96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適宜한 예를 두 가지 인용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33) 『高麗史』 卷101, 「列傳」 卷14, <王珪>

34) 『高麗史』 卷104, 「列傳」 卷17, <羅裕>

왕정복고 뒤인 원종(元宗) 때(1259~1274)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다. 그런 실력자의 요구를 중하급 관리가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데, 나유는 의연히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적진에 빠진 아내를 끝내 구해 와 다시 부부생활을 했다는 데서 더욱 칭찬을 받는다. 그 때는 최씨정권이 망했다고 하나, 아직 삼별초의 남은 세력들과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었고, ‘적의 수중에 떨어진 사람들’이라 함은 바로 그 와중에 벌어진 일련의 싸움에서 붙잡혀 간 여자들을 일컫는다.

자료 [7]은 당시 일반적인 상황을, 자료 [8]은 특이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죽음이나 이혼이나의 선택이라면 어느 쪽이 더 쉬웠을 것인가 대답하기란 간단하다. 왕규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의로운 경우는 비록 그 숫자가 적어도 특별히 기록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서,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까닭도 여기서 말미암는다.

다만 누구나 의로운 일이라 하여 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지와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13세기의 비극적 세계관이었다.

한편, 이와 대응하여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사랑 이야기이다. 흥륜사의 법당과 탑을 돌며 복을 비는 모임에서 만난 김현과 처녀는 서로 눈이 맞아, 바로 정을 통하며 부부의 연에 버금가는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처녀는 산중에 사는 호랑이였다.

김현이 굳이 처녀의 집까지 따라가면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여자에게는 세 명의 오빠가 있는데, 사람을 해치며 나쁜 일을 많이 저질러 하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김현은 이 와중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사세가 위중해 진 것을 안 호랑이 처녀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였다.

“세 분 오빠는 멀리 피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몸 바쳐 대신 벌을 받겠어요.”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꼬리를 떨구며 도망가 버렸다. 여자가 들어가 김현에게 말했다.

“처음에 저는 그대가 제 족속들과 부딪혀 당할 곤욕을 부끄러워하였기에 한사코 막았었습니다. 이제 위태로움은 사라졌으니 감히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천한 계집이 낭군에게야 비록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지만, 짝이 되어 하루 저녁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뜻 깊어 맺은 부부의 인연만큼이나 소중하지요. 그러나 세 오빠의 나쁜 짓은 이미

하늘이 미워합니다. 일가에게 닥칠 재앙을 제가 감당하려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죽느냐 낭군의 칼끝에 얹어진다면, 그것으로 은덕을 갚는 것이겠지요? 제가 내일 저잣거리 에 들어가 처참한 행패를 부리겠지만, 나라 안의 사람 어느 누구도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반드시 사람을 모아 높은 벼슬을 걸고, 저를 잡으라고 하겠지요. 낭군께서는 겁먹지 마시고 저를 따라 오십시오. 성 북쪽 숲 속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귀는 것은 누구나 아는 도리이지만, 사람과 짐승이면서 사람은 정녕 특별한 일이네. 이제 조용해졌으니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 준 다행일세. 차마 어떻게 배필로 맞은 이의 주검을 팔아 한 세상 벼슬이나 얻을 요행을 삼겠나?”

“낭군께선 그런 말씀을 마세요. 이제 저의 목숨은 천명을 누렸고 또한 저의 소원입니다. 낭군에게는 경사스런 일이요, 우리 족속에게는 복이며, 나라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한번 죽어 다섯 가지 복이 갖춰지니 거스를 수 있겠어요?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짓고 경전을 읽어 좋은 업보로 삼아 주신다면, 낭군의 은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겠나이다.”³⁵⁾

호랑이 처녀는 자신을 희생하여 위기에 처한 김현을 구하고 오빠들의 징발을 면하게 한다. 하나의 희생이 여러 가지 이득을 가져오는 것을 경사와 복 그리고 기쁨으로 여길 정도이다. 일연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처녀의 이 같은 정신을 높이 샀다. 자료 [7]에서 왕규가 보여준 이기적 행동과는 반대이고, 자료 [8]에서 나유가 보여준 이타적 행동에 가깝다. 물론 김현 역시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자신이 얻을 행운을 부끄럽게 여긴다. 두 사람은 부부의 지고지순한 경지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일연이 이 이야기 끝에 중국의 고사에서 신도정(申都澄)의 이야기³⁶⁾를 가져 온 것도 주제의식을 한층 부각시킨다. 호랑이 처녀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대목은 유사하나, 끝내 부인은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산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김현의 아내로서 호랑이 처녀와는 크게 다르다. 두 이야기를 소개한 뒤 일연이 내린 평설(評說)이 이어지거니와, 김현의 아내를 평가한 다음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현의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해쳤으나, 좋은 처방으로 잘 이끌어 주어서 그 사람들을 치료했다. 짐승이라도 인자한 마음 씀이 저와 같으니 이제 사람이면서

35) 『삼국유사』, 「感通」, <金現感虎>

36) 이 이야기는 『太平廣記』에 실려 있는데, 일연은 부분적으로 中略하면서 轉載하였다.

짐승만 못한 이들은 어찌하리.³⁷⁾

‘짐승이라도 인자한 마음 씀’이라든지 ‘사람이면서 짐승만 못한 이들’이라는 표현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피폐한 자신의 시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V. 불교적 의의의 구현을 통한 복원

일연은 13세기 고난의 시기와 그 생애를 같이 하였다. 정쟁(政爭)과 전쟁의 혼란이 가져온 결과였다. 『삼국유사』는 무너진 나라의 폐허 속에 시대의 아픔을 통감(痛感)한 지식인이 이룩한 무등(無等)의 텍스트이다. 시대의 아픔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밝히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내놓았다. 그것은 이야기가 주는 위안과 즐거움을 통해서였다.

이야기는 불교적 의의가 구현된 것이라 하였다. 나아가 불교적 의의란 변증적 사고방식이 생활에 적용된 알고리즘(algorithm)이라고도 하였다. 알고리즘의 해답은 분명히 나온다. 다만 처음부터 확정된 것은 없다. 어떤 경우이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연산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였다.

고려의 문신사회를 뒤엎은 무신정권은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역전을 가져왔다. 그것이 공(功)일수만은 없었지만, 일연 같은 승려가 불교적 의의를 구현할 바탕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유교적 효(孝)의 관념과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그렇다. 무엇이 진정한 효인지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의 바탕은 불교적 변증의 상황 논리이다.

의상(義湘)의 십대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진정(眞定)의 이야기이다.³⁸⁾

가난하고 평범했지만 진정은 출가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홀로 남게 될 늙은 어머니였다. 부역하는 틈틈이 품을 팔아 곡식을 받아다 모시고 있었다.

37) 위와 같은 부분

38) 『삼국유사』, 「孝善」, <眞定師孝善雙美>

그런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진정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였다. ‘효도가 끝나고 나면’ 출가하겠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줄다리기는 팽팽하다. 본문에서 일연은 그것을 삼사삼권(三辭三勸)으로 요약하였다.

아들은 출가를 하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겠다고 사양하자, 어머니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어렵고 인생은 짧은데, 효도를 마친 다음이라니? 그건 너무 늦다. 내가 죽기 전에 도를 듣고 깨우쳤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거라.”³⁹⁾고 권하였다. 첫 번째 사양과 권유이다.

아들은 다시 사양하였다. 어머니가 많이 늙어 옆에서 지켜야 하니, 이 일을 놓고 출가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어머니는 다시 권하였다.

“아니다. 나를 위한다고 출가를 못 하다니. 그건 나를 지옥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이야. 비록 살아서 삼괴칠정(三牢七鼎)으로 나를 모신들 어찌 효도라 하겠느냐? 나는 남의 집 문 앞에서 옷과 밥을 빌어도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정말 내게 효도를 하려거든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⁴⁰⁾

두 번째 사양과 권유이다. 어머니의 이 말에서 우리는 불교적 인식이 바탕이 된 특이한 효도관을 보게 된다. 아들은 전형적인 인간의 도리로 사양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머니는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며 설득하였다. 아들의 선의와는 달리 출가가 늦어지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도리어 지옥 구덩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이승의 호사가 중요하지 않다. 봉양이 전형적인 효행이라면 어머니는 이에 반(反)하여 출가가 효행의 궁극임을 설파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평범한 어머니로써 그렇게 지양된 지점이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불교적 변증이 그 생활 속에 녹여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머뭇거리다. 침통한 생각으로 머리를 떨구고 있었다. 세 번째 사양하는 아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권하는 어머니의 행동은 이 이야기의 절정이다.

39) 위와 같은 부분

40) 위와 같은 부분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쌀독을 뒤집어 쌀 일곱 되를 털어 내 그 자리에서 밥을 짓고는 말했다.

“네가 밥 지어 먹으면서 가느라 늦어질까 오히려 두렵다. 내 보는 눈앞에서 그 중 하나를 먹고, 나머지 여섯 개를 싸서 서둘러 가거라.”⁴¹⁾

어머니의 세 번째 권유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이만큼 결연한 행동은 확고한 신념 아래 나오는 것이었다. 진정이 의상의 문하에 들어 수행의 모범을 보인 뒷이야기는 후일담이다. 이미 자식에게 출가를 권하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줄 고갱이는 다 나왔다. 이 같은 삼사삼권(三辭三勸)의 서사(敘事)에는 불교적 변증의 알고리즘으로 풀리는 맥락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위안의 서사에는 관음보살이 등장한다. 중국의 관음신앙이 토착적인 도교신앙과 만나 현세구복으로 흐른 것과 마찬가지로⁴²⁾ 신라 또한 여기에 견주어지는 사례를 많이 남기고 있거니와,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인 자료 [6]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은함이 늦은 나이에 중생사의 관음보살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빌어서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백일도 지나기 전에 견훤의 신라 침공으로 성안이 온통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다시 이 절을 찾아 아들을 금당에 두고 피난 갔다. 여기까지는 앞서 보인 바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유기(遺棄)와 다를 바 없는 비극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최은함의 이야기는 반전을 기다리고 있다.

보름쯤 지나 적들이 물러가자 와서 찾아보니, 피부가 마치 새로 목욕한 듯, 몸이 반들반들하며, 입 언저리에서는 아직 우유 냄새가 나고 있었다. 안고서 돌아와 길렀는데, 자라자 남보다 총명하기 그지없었다. 이 사람이 바로 최승로(崔丞魯)이다.⁴³⁾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한 것이 관음보살이라고 믿는다. ‘입 언저리에서 나는 우유 냄새’가 그 증거이다.⁴⁴⁾

41) 위와 같은 부분

42) 中村元 외 편집 『岩波佛教辭典』(제2판), 岩波書店, 2002, p.184

43) 『삼국유사』, 「塔像」, <三所觀音衆生寺>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전쟁의 참상은 13세기 고려를 그대로 상상하게 한다. ‘아이를 나무에 붙잡아 매어놓고’⁴⁵⁾ 가는 자와 ‘강보에 싸서 부처가 앉은자리 아래 감추고 하염없이 돌아보며’⁴⁶⁾ 간 자의 처지가 다를 바 없다. 나무와 부처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내분(內紛)과 전쟁의 와중에서 강간(強姦), 유기(遺棄), 살인이 횡행하는 시대였다. 폐허였다. 이런 시대와 대응하여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연의 의중에는 폐허를 복구하는 의지가 숨어 있다. 그래서 시대의 아픔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밝히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주는 위안과 즐거움이였다.

인간성의 상실에 대처하는 대자대비의 염원이 허망(虛妄)은 아니다. 일연이 목적인 바, 파괴 속에서의 복원은 불교적 의의의 구현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이것이다.

【参考文献】

『三國遺事』
『高麗史節要』
『高麗史』

고운기 『삼국유사 글쓰기 감각』, 현암사, 2010, pp.46-47
_____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02, pp.690-693
_____ 「13세기 여성의 삶과 그 인식」,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2001, pp.69-96
_____ 「문화원형의 의의와 삼국유사」, 『한문학보』24집, 우리한문학회, 2011, p.19
김운회 『몽골은 왜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나』, 역사의아침, 2015, p.31
민영규 『四川講壇』, 又半, 1994, p.78
석지현 엮고 옮김 『선시』, 현암사, 2013, pp.64-65
성철 『百日法門』, 장경각, 1990, p.141

44) 고운기 「문화원형의 의의와 삼국유사」, 『한문학보』24집, 우리한문학회, 2011, p.19. 관음보살이 아이를 구하는 이야기의 원형은 근래 들어 오세암 전설로도 이어진다. 위의 논문, pp.19-21 참조
45) 각주 28 참조
46) 각주 22 참조

송준호 『우리 한시 살려 읽기』, 새문사, 2006, pp.32-33

_____ 『한국명가한시선 I』, 문헌과해석사, 1999, p.25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제4판), 지식산업사, 2005, p.28

中村元 외 편집 『岩波佛敎辭典』(제2판), 岩波書店, 2002, p.184

■ 접수일 : 2017년 02월 28일
심사개시 : 2017년 03월 16일
심사완료 : 2017년 04월 13일
게재결정 : 2017년 04월 24일

〈要旨〉

破壊と復元の弁証

一然は、13世紀の苦難の時期とその生涯を一緒にした。政争と戦争の混乱が招いた結果であった。『三国遺事』は、崩れた国の廢墟の中に、時代の痛みを痛感した知識人が成した無等のテキストである。内紛と戦争の渦中にて強姦、遺棄、殺人が横行する時代であった。廢墟であった。こんな時代と対応して、過去の歴史の中から伝えて来る話を収集する一然の意中には、廢墟を復旧しようとする意志が隠れている。

この文では、次のような三種類の歴史的事件を、『三国遺事』の話と比べ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

- 一崔忠献 暗殺の試み / 弓巴 暗殺
- 一木に結んでおいた子供 / 地に埋まる所であった子供
- 一強要される離婚 / 死を不辭する愛

話は仏教的な意義が具現されたのであった。仏教的な意義とは、弁証的考え方が生活に適用されたアルゴリズム(algorism)だ。そんな弁証の土台の上に、13世紀の高麗の歴史を文学的に再構して見られる。これは、一然が当代の事実を前代の歴史や説話に規準して書いているものであった。

The Dialectic of Destruction and Restoration

Il-Yeon(一然) lived in the 13th century, the hard times. It is resulted from the chaos of political strife and war. <Samkukyusa(三國遺事)> is the best text achieved by the intellectual who fully realized the pain in the period of national ruin. It was the time of rape, abandonment, and murder. It was devastation, itself. Il-Yeon's will is hidden in his mind, as he responded to the times and collected the stories in the past history.

The following historical accidents are analyzed comparatively with the stories from the <Samkukyusa> in this article.

- A try to assassinate Choi Chung-Heon(崔忠獻) / Assassinated Gungpa(弓巴)
- A tied child to a tree / An almost buried child in the ground
- A Forced divorce / An immortal love

The meaning of the Buddhism is embedded in the stories. The meaning is the algorism in which dialectic thinking is adopted in life. The Goryo(高麗)'s history in the 13th century can be reconstructed literary on the dialectic basis. That's why Il-Yeon applied the fact in his time to the history and folk-tales in the previous time.